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에 대한 인지가 사회서비스기관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 옥 남*

1. 노년기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노인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소가족화, 여성취업 증가 등의 실제적 요인과 함께 '효의식'과 연관된 가치의 변화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는 일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더욱 전망해보면서, 과연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갖추어져 있는 지 궁금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전통적인 일차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노인들은 자신이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지지체계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에 대한 인지가 사회 서비스기관의 이용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에 관한 국제적인 조사연구들에서는 비공식 지지(informal support)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보호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Johansson, Thorslund, Smedby, 1993)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러한 비공식 지지가 자의적인지 혹은 하나의 강제적 책임인지, 논의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해 비공식 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의, 또는 공식적 보호가 결핍되어 있음을 반영

* 강남대학교

한다고도 해석한다.(Abraham et al., 1989; Daatland, 1990; Lingsom, 1989).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에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노인의 인지가 사회서비스기관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노인복지 서비스 실천에 대한 함의를 갖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는 매일의 일들, 즉 일상적인 과제와 감정을 공유하고 정보와 애정을 교환하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의 기쁨, 고립의 고통, 가족 연대, 친구들의 밀착과 같은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에 기초가 되는 개념은 일상적인 것, 그리고 충분한 경제력이 관계된다.(Alan Vaux, 1988, 1)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 노년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개인의 모든 사회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및 보다 공식적인 지원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Ell, 1994)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제공하는 원조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고 하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제도와의 상호 교환관계를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 system)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체계는 공식적 지지체계와 비공식적 지지체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지체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의 뿌리를 추적해 보자면, 프랑스의 초기 사회학자 뒤르켐(E. Durkheim, 1897-1951)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뒤르켐은 산업사회에서 과거의 농촌사회와는 달리, 사라져 가는 사회적 연대-가족, 지역사회, 교회-가 소외상태라든지 자살의 원인이 되는 점을 내다 보면서 사회적 역할과 규범의 해체를 중요시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되고 있는 사회해체는 농촌생활의 대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개인적인 특징을 지닌 관계들이 비개인적이며, 특수하고, 형식적인 관계들과 대조되어 도시생활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학자들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대재앙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심리적 불안에 대한 사회해체와 연결짓는, 복합적인 생태학적 관점을 더 취한다. 그러한 작업은 반드시 사회역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사기(morale)라든지 안녕(well-being)이 일차집단의 연대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생각이나,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핍, 규범과 관련된 혼란과 절망 같은 것들이 현대적인 사회적 지지에 관한 논의 속에서 반추되고 있다.

생활 속의 사회적 관계들은 일찍이 심리발달 이론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유아기의 애착행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발달면에서 볼 때는 친근한 사람들과의 애착이 보다 중요하므로 그러한 애착은 인생주기 전반에 따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및 기타 사람들과의 다양한 측면의 정서적 지지는 여타 환경적 여건들과 더불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있어서는 특히 건강과 경제, 일, 외로움들에 있어서 비공식적,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가 더욱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형태와 종류들을 살펴보겠다.

(2) 사회적 지지의 형태

사회적 지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다. 즉 지원관계들은 많은 기능을 하며 지원행위는 여러 종류의 활동을 포함한다. 세 가지 전략이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나누는데 이용되고 있다. 첫째, 기능과 활동을 구분한다. 둘째, 경험적으로 발생된 도움의 형태들을 검토한다. 셋째, 지지의 유형학(typology)에 관한 논평들을 검토한다.(Vaux, 1988, 21) 나아가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양식과 기능들을 구분하고 있다. 용어상의 구분과 혼동이 있는데 특히 도구적, 정의적인데서 그러하다. Warren(1981)은 사회적 지원망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게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비롯하여 공식적 지지자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Toits(1982)는 사회적 지원망을 도구적 지지와 표현적 지지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도구적 지지는 충고, 정보, 재정적 지원, 일의 보조 등을 말한다. 표현적 지지는 '사회 심리적 원조'로서 감정, 동정, 이해, 수용, 존중 등이다. 개인의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충족되기도 한다. Toits의 중요한 지적은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기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는 역할 역전(role reversal)이나 자신의 능력 감퇴를 받으므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지지의 도구적 기능은 재화와 돈(물질적 도움 또는 재정적 보조)을 제공하고, 정보라든지 제안을 하는 것,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충고와 지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서적

기능은 사랑과 애정, 자기평가와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과 친구관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욕구들은 정서적지지, 피드백과 사회적 강화, 그리고 사회화를 통해서 충족된다.

사회적 지원망 분석을 하므로써 이로운 점은, 사회적 지지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풍부한 개념적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데에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볼 때, 지지망의 크기, 구성, 밀도 등에서, 가족성원과 친구들 사이의 밀도, 별거부부의 지원망 그리고 지원관계들의 상호성, 다양성, 근접성과 갈등간의 중복 등 여러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Barrera 1981 ; Hirsh 1981 ; Torsdorf 1976 ; Vaux and Harrison 1985, 14)

이러한 지지망의 특징들은 지지행위, 지지호소들,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연관된다. 지지해주는 지원망(support network)이 보다 큰 사회지원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지지와 지원망에 관한 혼돈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원망의 특징이 증가되어 왔고 이에 관한 측정 방법들이 발달되어 왔다. 그러므로 지원망 분석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사연구의 초점이 되며 지원현상을 보다 완전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양옥남, 1997)

(3) 지원활동의 종류

사회적 지지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지원활동에 관한 종류들을 얘기하고 있다. 예컨대 Caplan(1974)은 세 개의 지원활동의 범주를 지적하였다. 첫째, 자원을 이동하고, 정서문제를 관리하도록 돕는 것, 둘째, 과제들을 공유하는 것, 셋째,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도록 돕는, 물질적이며 인지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Cobb(1976)은 보호받는다, 존중감이 있다, 연관된다는 신념을 갖게 하는 정보들이라고 구분 짓는다. 한편 Weiss(1974)는 접촉, 사회통합, 가치의 재확인, 믿을 수 있는 결합, 안내, 양육되는 기회 등을 포함한 6가지 사회적 관계의 규정을 구분 짓고 있다. 그는 Cobb보다 더 특정한 유형의 관계들과 연결되는 특수한 기능을 내다보고 있다. 그의 사회적 규정에 관한 관점은, 사회적 규정의 특수한 활동에서가 아니라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점을 중요시 한 것이다.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는 가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각 구성원의 스트레스는 물론 이의 대처방법을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지원의 여부에 불구하고 각 가족은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원과 연관된 대처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이에 관한 밀도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위에서 살펴본 개념상의 혼란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규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1).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구적-정서적 지지, 여가활동 지지, 과제적 지지로 분류한다. 즉, '편안함과 격려를 준다', '경제적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의 세 문항은 "도구적-정서적지지"로 명칭을 붙였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요리, 세탁 등)에 도움을 준다.' '아플 때 도움을 준다.'는 "과제적 지지"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여가생활(외식 등)에 도움을 준다.' '함께 외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여가활동지지"로 재개념화 하였다. (2). 또한 조사대상 노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만 60세 이상의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이다.

3. 연구설계

1) 표집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표집법(multi-stage sampling)의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25개 구에서 각 10명씩의 재가노인 25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6월~8월 사이이며, 조사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훈련받은 조사원들이다. 보다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기간 지속적인 모임을 가졌다.

2) 변수의 측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1997년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에 객원 교수(Research Professor)로 가 있는 동안 그 곳에 재직중인 Ada. C. Mui 교수 등과 국제적인 노인조사 프로젝트 준비과정에서 제공받은 질문지이다. 본 조사에서는 원래의 질문지 내용들을 번안한 후에 우리나라 노인조사에 적합하게 재구조화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노인의, ①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② 비공식 지지에 대한 인지에 관한 문항, ③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문항 ④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이용 태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독립변수인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 인지'에 대한 측정도구는 Cronbach's alpha가 .7495이었으며, 종속변수인 '노인의 사회서비스기관 이용'에 관한 측정도구는 Cronbach's alpha가 .7795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신뢰도 측정

가. 독립변수 : 노인의 비공식지지체계에 대한 인지 수준.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를 질문한 7개 문항에 대한 측정에서, 비공식체계의 지지 수준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의 수준에 따라 많음=3, 약간=2, 조금=1, 없음=0으로 부호화 하였으며, 이산형인 각 문항의 점수의 합에서 평균을 내어 이를 기준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에 대한 부분적인 신뢰성 결과를 보면, Alpha 값이 0.7495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문항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lpha if Item Deleted"의 항목은, 이 항목이 제외되었을 때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A2, A3가 제외되면 신뢰성의 값이 각각 0.6805, 0.6852의 수치로 떨어진다. 따라서 <표 2>의 A2, A3인 경제도움과, 정서도움이 다른 지지 체계에 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질문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신뢰도 측정 표에서는 각 문항을 간략한 단어로 표현하였다.

- ①.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께 편안함과 격려를 줍니까?
- ②.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줍니까?
- ③.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까?
- ④.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의 일상적인 일들(요리, 세탁 등)에 도움을 줍니까?
- ⑤.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도움을 줍니까?
- ⑥.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의 여가 생활(외식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까?
- ⑦.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외출(쇼핑, 동사무소 일 등)을 얼마나 합니까?

<표 1>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의 인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A1 결정도움	10.3640	15.1883	.4855	.7151
A2 경제도움	10.7920	14.3742	.6233	.6805 ①
A3 정서도움	10.9120	14.3697	.6027	.6852 ②
A4 외출도움	10.3160	16.5303	.3383	.7491
A5 여가도움	9.9200	16.6602	.5224	.7121
A6 일상도움	11.0480	16.9615	.3797	.7368
A7 병환도움	11.2160	17.4391	.3306	.7458

Reliability Coefficients

N of Cases = 250.0

N of Items = 7

Alpha = .7495

(2). 종속변수인 ‘노인의 사회서비스 기관 이용 태도’에 관하여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조사한 질문지에서는 12개 문항이어서 전체에 대하여 신뢰도 측정을 하였으나 점수가 높지 않아 설명력이 있는 7개 문항에 대하여 ‘부분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7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성으로부터 도움 받고 싶지 않다. 2).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3). 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 4).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 역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5).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싫다. 왜냐하면 개인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싫다.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7).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싶지 않다.

3). 요인분석에서는 비공식 지지체계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 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고유값의 크기가 1 보다 큰 인자는 의사결정도움, 경제도움, 정서도움이었으며, 이 세 요인의 분산의 정도는 79.25% 이다. A1이 41.133%, A2가 22.899%, A3은 15.220%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비공식 지지체계의 요인분석

	성분		
	도구적-정서적 지지	여가활동 지지	과제적 지지
의결도움	.868		
경제도움	.842		
정서도움	.814		
외출도움		.917	
여가도움		.909	
일상도움			.903
병환도움			.746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7개의 인자는 그 성질에서 세 부분으로 묶여졌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였다. 즉, 도구적-정서적 지지, 여가활동 지지, 과제적 지지이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배경 변수)에서는 백분율, 평균값 등의 기술적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와, 사회서비스 이용태도에 대하여 신뢰도 측정을 한 다음, (3).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의 도움 정도를 판별해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또한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판별하고 각각의 선행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5). 나아가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태도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으며, (6). 이에 덧붙여 명목변수 간의 연관성 여부 측정에서는 램다를 사용하여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4. 분석결과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노인이 60.4%로 남자노인(38.4%) 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71-80세가 52.8%로 가장 높다. 또한 여자노인의 연령평균은 75세, 남자노인은 72세이어서 전체노인의 평균연령은 약 74세이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절반이상(52.0%)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32%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과반수(52%)나 되는데(양옥남, 1997) 비하여 낮은 수치이다. 노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 절반 이상이고, 가족형태에서는, 노인 단독가구가 8.86%이며, 배우자 없이 자손과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 48.0%이다. 노인들 중의 98.4%는 종교를 갖고 있으며, 불교를 믿는 노인이 41.2%로 가장 높다. 그리고 노인들은 대다수(65.2%)가 가족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에서는 성별과 결혼상태에서 각각 3명이 결측치임을 밝혀둔다.

<표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여	151	60.4
남	96	38.4
연령		
만 60세	14	5.6
61-70세	56	22.4
71-80세	132	52.8
81-90세	44	17.6
90세 이상	4	1.6
교육정도		
무학(문자해독 불가)	80	32.0
무학(문자해독 가능)	50	20.0
국민학교	78	31.2
중학교	18	7.2
고등학교	17	6.8
대학 이상	7	2.8
결혼상태		
유배우자	106	42.4
사별	139	55.6
별거/이혼	2	.8
가족형태		
혼자산다	22	8.8
배우자	37	14.8
부부 및 자손	67	26.8
배우자 없이 자손만	120	48.0
친척	4	1.6
종교		
불교	103	41.2
천주교	24	9.6
기독교	50	20.0
기타	5	2.0
없음	68	27.2
계	250	100.0

2) 노인의 비공식지지체계에 대한 인지가 사회서비스 이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로지스틱 회귀수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조작적 정의를 내린 세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odel 문(文)인 “영가설: 도구적-정서적 지지, 여가활동 지지, 과제적 지지의 계수들은 모두 0이다”를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표 4> 노인의 서비스이용태도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이용태도	Chi-Squae	df	Sig.
1 .이성으로부터 도움 받고 싶지 않다.	7.784	3	.0507
2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10.544	3	.0144
3. 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	.832	3	.8418
4.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 역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9680	3	.0215
5.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싫다. 왜냐하면 개인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싫다.	.888	3	.8284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20.397	3	.0001
7.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4.807	3	.1865

<표 4>의 2. 4. 6. 항목에서 각각 0.014, 0.215, 0.0001의 유의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로지스틱 회귀식과, 각 독립변수인 노인의 비공식

지지체계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도구적-정서적지지', '여가활동 지지', '과제적 지지'는 '관계도1', '관계도2', '관계도3'으로 편의상 바꾸어 사용하였다.

먼저, 항목2는 유의확률이 0.0144이어서 0.05보다 작아 유의하므로 영가설을 기각한다. 즉, 수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유의한 계수들이 어떤 회귀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1

	Chi-Square	df	Sig.
Model	10.554	3	.0144
Block	10.554	3	.0144
Step	10.554	3	.0144

$$\text{항목2. : } \text{logit}(\text{가족외 다른사람 거부}) = -0.7879 + 0.2760(\text{관계도1}) + 0.1237(\text{관계도2}) - 0.7114(\text{관계도3})$$

<표 6>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모형1)

Variable	B	S.E.	Wald	df	Sig	R	Exp(B)
관계도1	.2760	.2170	1.6176	1	.2034	.0000	1.3178
관계도2	.1237	.2061	.3604	1	.5483	.0000	1.1317
관계도3	-.7114	.2225	10.2255	1	.0014	-.1949	.4910
Constant	-.7879	.4783	2.7135	1	.0995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볼 때 노인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과제적 지지이다. 즉, 노인은 일상적인 음식 만들기, 세탁 같은 일들에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목4에서의 로지스틱 회귀식 모형에서는 유의확률이 0.2154이므로 0.05보다 작아 유의하다.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하므로써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2

	Chi-Square	df	Sig.
Model	9.680	3	.0215
Block	9.680	3	.0215
Step	9.680	3	.0215

항목4. : $\text{logit}(\text{신경 쓰여 다른사람 거부}) = -0.2314 + 0.0100(\text{관계도1}) - 0.2758(\text{관계도2}) - 0.4811(\text{관계도3})$

<표 8>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모형2)

Variable	B	S.E.	Wald	df	Sig.	R	Exp(B)
관계도1	.0100	.2002	.0025	1	.9601	.0000	1.0101
관계도2	-.2758	.2048	1.8143	1	.1780	.0000	.7590
관계도3	-.4811	.2081	5.3441	1	.0208	-.1215	.6181
Constant	-.2314	.4657	.2469	1	.6193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볼 때,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서도 역시 일상적인 일, 아플 때 도움을 주는, 과제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

항목6의 로지스틱 회귀식을 아래에서 보면 유의확률이 0.0001이므로 0.05보다 매우 작아서 유의하므로 영가설을 기각한다. 수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유의한 수치들이 아래의 회귀식으로 나타난다.

<표 9>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3

	Chi-Square	df	Significance
Model	20.397	3	.0001
Block	20.397	3	.0001
Step	20.397	3	.0001

항목6. : $\text{logit}(\text{타인지시 거부}) = -0.2873(\text{관계도1}) + 0.5027(\text{관계도2}) - 0.6456(\text{관계도2}) - 0.3361(\text{관계도3})$

<표 1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모형3)

Variable	B	S.E.	Wald	df	Sig	R	Exp(B)
관계도1	.5027	.1834	7.5139	1	.0061	.1373	1.6531
관계도2	-.6456	.1830	12.4417	1	.0004	-.1889	.5244
관계도3	-.3361	.1990	2.8516	1	.0913	-.0539	.7146
Constant	-.2873	.4524	.4033	1	.5254		

셋째,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구적-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지와, 여가활동 지지에 대한 인지에서 그러하다.

3)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이용 태도와의 연관성

배경변수인 노인의 일반적특성과, 서비스기관 이용 태도와의 독립성 검정에서는 카이제곱의 통계치로 관련 여부를 파악하였다. 카이제곱은 두 변수의 관계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는데 주로 쓰인다. 그러므로 두 변수의 분포에 대한 동일성 여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카이제곱의 값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두 변수가 독립이 아닌 경우, 명목변수일 때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램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관성'은 두 변수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말한다. <표 8>

먼저, 성별에서는 문항, 2).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3). 가족 이외의 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 4).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 역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5).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싫다. 왜냐하면 개인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싫다.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7).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등의 6개 항목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은 아래의 <표 8>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상태에서는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랍다의 측정에서는 유의수준 0.39에서 두 변수간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경우, 신경이 쓰여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0.002) 그리고 종교에서는 2. 3. 4. 5. 7. 번의 문항과 각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유의확률을 참작해보면 알 수 있다. 끝으로 교육은 종속변수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1. 2. 3. 4. 6. 7.번 문항과 분포가 동일하다. 그리고 노인의 교육수준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오는 것이 개인 생활의 방해를 받으므로 싫다”.는 문항과 관련이 없다.

<표 8> 노인의 일반적특성과 서비스이용 태도와의 연관성(카이제곱 검증)

서비스이용태도	성별	결혼상태	가족관계	종교	교육
	(값)	8. 851			47.184
1. 이성으로 부터 도움 받고 싶지 않다.	(자유도)	1			5
	(유의확률)	.003			.000
2.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10.019			13.444	34.130
	1			4	5
	.002			.009	.000
3. 모르는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와 나를 돕는것을 원치 않는다.	11.171			10.439	36.006
	1			4	5
	.001			.034	.000
4. 누군가로 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 역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16.460		11.485	17.540	24.034
	1		4	4	5
	.000		.022	.002	.001
5.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싫다. 왜냐하면 개인생활이 방해되는 것이 싫다.	5.265			9.615	
	1			4	
	.022			.047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11.729				28.122
	1				5
	.001				.000
7.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않다.	6.721			10.052	13.530
	1			4	5
	.010			.040	.019

5. 결론

본 조사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비공식체계인 가족, 친구, 이웃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에 먼저 관심을 두었다.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의사결정에의 도움 등을 기존에 연구된 이론을 참작하여 '도구적-정서적 지지'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장보기, 외출 등의 도움은 '여가활동 지지'로, 그리고 일상생활과 아플 때의 도움은 '과제적 지지'로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세 개의 변수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 공통의 성질로 묶여졌기 때문에 재개념화 하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노인의 사회서비스 기관 이용에 관한 태도에 위의 독립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과제적 지지인데, 즉, 노인은 일상적인 음식 만들기, 세탁 같은 일들에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서도 역시 일상적인 일, 아플 때 도움을 주는, 과제제적 지지에 대한 인지가 영향을 미친다.

셋째,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구적-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지와 여가활동 지지에 대한 인지에서 그러하다. 즉, 노인은 가능하면 의사결정을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고, 정서 관리에서도 자율성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나아가 물건을 산다든지, 바깥출입에서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하기를 원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의 간략한 결론에서, 앞으로의 노인복지 서비스 실천에 있어서의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노인을 위한 서비스 기술의 개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노인의 심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볼 때 노인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자신과 부양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좋겠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만족도, 욕구 등에 관한 조사도 함께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한상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노인의 건강, 경제형편, 가족관계의 현재 상황이 공식, 비공식 서비스 이용과 연관되는 점, 공식, 비공식 서비스의 차이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비공식체계에서의 지지와 사회서비스기관 같은 공식적 지지체계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노인이 서울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대상자의 양적인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 노인의 비교라든지, 계층별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노인복지 실천 과정의 구체적인 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양옥남(1997). 노인과 부양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30집, 강남대학교 출판부.
- 양옥남(1997). 노인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7권 3호, 한국노년학회.
- 이원숙(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이론, 홍익제.
- 차 흥봉(1997).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정책 과제」, 사회정책 연구, 사회정책연구소.
- 최성재(1999).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통권 제140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함철호(1997). 재가복지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수혜노인과 비수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과 생활만족도 차이 검증-, 한국노년학, 17권 1호. 139-159.
- 황미영(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9권 2호.
- 홍순혜(1999). 치매 및 우울 의심 노인과 정상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비교 연구, 한국 노년학. 19권 2호.
- Anderson, E., (1993). *Aging parents you*, New York: Mastermedia Limited.
- Ashton, V., (1996). A study of mutual support between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and their adult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26(112): The Howard Press: Inc. 87-100.
- Datland, S.O., (1990). "What are families for?" On family solidarity and preference for help. *Aging and Society*, 10, 1-15.
- Denton, M., (1997). Linkages between informal and formal care of the elderly, *Canadian Journal on Aging*, Spring, Vol. 16(No. 1): 30-50.
- Ducharme, F., (1994). Conjugal support, cop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pouse, *Research on Aging*, Vol.16, No.2, June, 167-190
- Johansson, L., Torslund, L., Smedby, B., (1993). Formal and informal support among elderly in a rural setting in Swed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 20(1/2): The Howard Press, Inc. 79-95.
- Lingsome, S., (1989).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welfare state.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8, 18-35.

Toits, P.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buffering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